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재미교포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 미	천희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Seattle Pacific University
윤민지†	이혜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교포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돕기 위해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또래상담 역할모형에 기반을 둔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교포 청소년의 특성 및 심리적 문제,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의 문헌을 고찰하고, 해외교포 청소년 및 이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및 인터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총 '다가가는 친구되기(Friendship)', '대화하는 친구되기(Fellowship)', '도와주는 친구되기(Leadership)'의 3단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위해 미국에 거주 중인 해외교포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운영 실시 전후로 참여 청소년과 통제집단에 포함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능력, 자기효능감, 다문화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참여자 관점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독립표본 t검증과 공변량분석(ANC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 자기효능감, 다문화 정체성 점수가 프로그램운영 이전보다 이후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참여자 관점 평가 분석에서도 참여자들의 75% 이상이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90% 이상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밝혀서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프로그램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하였으며,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해외교포 청소년,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 본 연구는 2014년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2014년도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일부 발췌, 수정하였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윤민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8층, Tel: 051-662-3093, E-mail: forest4u@kyci.or.kr

현대사회 세계화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국외 이민 수는 증가해왔으며, 2007년 이후 700만 명이 넘는 해외교포가 180여개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 2013). 이러한 현상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한국의 국제화 역량을 뺏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해외 교포들은 새로운 언어와 생활방식 상 중요한 변화로 인해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Lee, Moon, & Knight, 2004), 우울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Portes & Rumbaut, 1996).

이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의 위험은 재미교포의 경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된다(Hurh & Kim, 1990). 재미교포의 우울 유병률은 상대적으로 필리핀, 일본, 중국과 같은 아시아계 이주민 가운데 가장 높고(유채영, 이주경, 2012에서 재인용) 그 정도가 일반 미국인들의 우울 유병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rnstein, Park, Shin, & Park, 2009). 우울은 가정폭력, 약물중독 등의 외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재미교포 가정 폭력 신고 건이 아시아계 이민족 중에서 가장 많으며, 이혼율이 가장 높다는 점(미주 YMCA, 2004)은 재미교포 가정에 대한 도움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재미교포는 전체 해외 교포의 30%에 해당하며(재외동포재단, 2010) 백만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바(재외동포재단, 2010; U.S. Census Bureau, 2010) 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교포의 우울 등 정신건강의 문제는 문화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박형원, 2010; 원영희, 2005; 이진숙, 데지레 친, 2011; Choi, 1997; Park & Bernstein, 2008; Park & Rubin, 2012), 문화적응은 상이한 문화 간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생긴 언어, 생활방식, 문화정체성, 그리고 태도 등의 변화이다. 문화적응 경험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부적응적인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친다(Miller & Chandler, 2002). 이러한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교포청소년의 경우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더해져 더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교포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를 겪음으로써 문화적응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박보라, 2008). 거주 국가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언어도 부모의 모국어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에 더 익숙한 반면, 가정에서는 부모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에 많이 노출된다. 이렇게 가정의 문화와 가정 밖 사회의 문화 간의 불일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화가 올바른 것인지, 자신이 어떤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게다가 미국 교포 청소년의 경우 백인과 뚜렷이 구분되는 외모로 인해 언어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도 주류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문성준, 2008). 더 나아가 소수민족 청소년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류 사회에서 갖는 소수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낮은 자아정체성 및 자긍심을 형성할 수 있다(Erikson, 1968; Phinney & Charvia, 1992; Tajfel, 1981). 부정적인 관점의 수용은, 소수민족 이민자로서 겪는 차별과 더불어 교포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떤 집단에도 소속되지 못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하고 자존감을 건강하게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Sue & Sue, 2008). 또한 교포 청소년들은 정체성 탐색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여 '강제학습증후군(Hurried Child Syndrome)'이 흔히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이민청소년들이 부모가 거는 성공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압박으로 인해 미국의 문화와 언어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오히려 브로커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일례로, 자녀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민 1세대 부모님을 대신하여 은행이나 공공기관과 소통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청소년들이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누릴 수 있는 탐험과 모험의 여유 없이 빨리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여러 심리적, 그리고 관계적 문제를 경험하게 만든다(Fong, 2004). 이들은 소수민족으로서 겪는 차별과 소소한 학대(microaggression)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며 어느 집단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자신의 정체감과 자존감을 건강하게 형성해 나가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Sue & Sue, 2008).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교포 청소년과 같은 이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Jang, Chiriboga, & Okazaki, 2009; Shea & Yeh, 2008). 많은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 집단은 정신질환이나 가족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문가의 치료나 상담을 찾는 경우는 다른 주류집단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변인이 연구되어져 왔는데 전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Jang et al., 2009; Shea, & Yeh, 2008) : (1) 소수민족의 문화, 가치, 언어에 부합하는 서비스나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문화 상담자의 부족, (2) 정신 건강에 대한 오해와 서비스에 대한 불신,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 (3) 개인·가정의 문제를 숨기려하는 체면 중시하는 문화 등이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포청소년들은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갈 시설, 프로그램, 상담자를 찾기 어렵다.

한편, 최근 소수민족과 인종 청소년의 문제를 서구적 상담 모델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근거하여 '보다 혁신적이며 지역 사회를 통합하는 모델(Natural Helpers Model, NHM)'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Sue, Cheng, Saad, & Chu, 2012). NHM은 '보다 혁신적이며 지역 사회 참여적 모델'의 대표적 모형이다. 이는 일정 집단 내에서 친구나 이웃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도움과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Natural Helpers)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흥미로운 것은, NHM이 기존의 또래상담과 여러 면에서 매우 흡사한 구조와 목표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NHM과 또래상담은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 아니라 공감과 경청을 통해 친구나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NHM이 집단에서 자연스럽게(Natural) 이미 생활에서 'helper'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래상담이 교육을 통해 'helper'로 양성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HM이나 또래상담은

집단에 소속한 일원으로서 집단이 필요로 하거나 어려워하는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와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 상담 전문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닌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NHM은 대부분 건강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교포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 및 검증이 되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해외교포 청소년에게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또래의 긍정적 지지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데, 해외교포 청소년을 위한 Natural Helper나 또래상담자 양성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또래친구에게 고민을 가장 많이 털어놓고, 또래라는 동질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Erikson(1968)의 청소년기 특징 관련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또래 간 상담 모형이다. 해외교포 청소년 또한 친구가 가장 중요한 지지자이고 특히 같은 문화권을 가진 또래 청소년 간 유대감이 높다(Noh & Avison, 199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교포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응의 문제를 포함하여 고민이나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경우 문화적응 과정에서 한국 문화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존감이 높고 잘 적응한다는 점(Kim, 1994)에서 한국 청소년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 운영된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교포청소년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임으로써 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대표적인 또래상담 프로그램인 솔리언또래상담(구본용, 구혜영, 이명우, 1994)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돕는 청소년 모두가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모토로 개발되어 전국의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솔리언또래상담은 Friendship(친한 친구되기), Counselorship(대화하는 친구되기), Leadership(도움되는 친구되기)의 정신을 함양하는 또래상담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Friendship단계에서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알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 Counselorship단계는 경청과 공감 전략을 사용하여 친구의 고민을 나누며, Leadership단계는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통해 친구를 돕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또래상담자의 양성교육은 총 11회기로 구성되며 총 12시간~15시간동안 분산 또는 집중 교육이 이루어진다.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다. 노성덕과 김계현(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또래상담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대인관계, 자아개념,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학교관련 태도, 진로, 비행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학교관련 태도에서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상담자들은 청소년의 인간관계 및 교우관계, 의사소통능력,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사회성, 친사회적 행동, 자기표현력,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주영, 임성택, 2010; 변상해, 김세봉, 2011; 박보라, 2008; 박은정, 2007; 류부열, 2007; 양가영, 2008; 오유하, 2009). 또래상담을 받은 또래내담자에게 있어서는, 또래상담을 받은 학교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이 향상되고 학교적응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최혜숙, 2006), 따돌림 피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정정임, 주은선, 2006). 또래상담이 학급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 또래상담 훈련을 받은 집단의 또래상담 활동이 해당 학급의 학급원간 응집력과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혜숙, 이현림, 2005),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이 교우관계와 학급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을 때, '의사소통', '이해성', '친밀감' 등의 교우관계 지각과 '학급친구에 대한 태도', '학급생활 태도' 등의 학급분위기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남희, 2005).

또래상담의 효과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솔리언또래상담은 해외교포 청소년의 환경적응, 의사소통 능력, 자아개념 형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교포 청소년의 배경적 특수성은 학교생활의 적응과 원활한 교우관계 형성 뿐 아니라 거주 국가에서의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거주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문화적·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적 차이는 상담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해외교포 청소년의 경우, 비슷한 배경과 가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또래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상담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해외교포 청소년 가족문화의 근간인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근간으로 하고 또래집단을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되는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교포 청소년들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해외 교포 청소년의 부적응문제를 예방하고 문화유능성(bicultural competence)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외교포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기술 함양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 건강을 돕고 궁극적으로 교포 사회 내 건강한 공동체문화 확산 및 다문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절차와 내용 및 구성은 어떠한가?
- 둘째,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참여한 청소년과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 간의 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 정체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과정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신을진, 김창대, 김형수, 이상희, 최한나(2011)와 양미진, 김은영, 이상희(2008)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모형에 기초하여 그림 1의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해외교포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국내외에서 보급되고 있는 또래상담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고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의 지원체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16명(3집단)의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FGI)와 이들은 지도한 경험이 있는 7명의 현장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지 구성 및 내용분석은 다수의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학박사 2인과 상담학석사 3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내용 분석결과는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상담학 박사 2명의 자문을 받았다. 셋째, 선행연구 결과와 인터뷰내용 시사점 및 기존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를 추출하고, 프로그램 초안과 지도자용 지침서(국영문), 웹교재, 워크시트를 개발하였다. 넷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2명의 시범운영 지도자에게 교육하고 해외교포 청소년 실험집단 2집단, 통제집단 1집단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범운영 전후로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하고 참가자의 회기 평가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전문가의 감수 및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방향을 결정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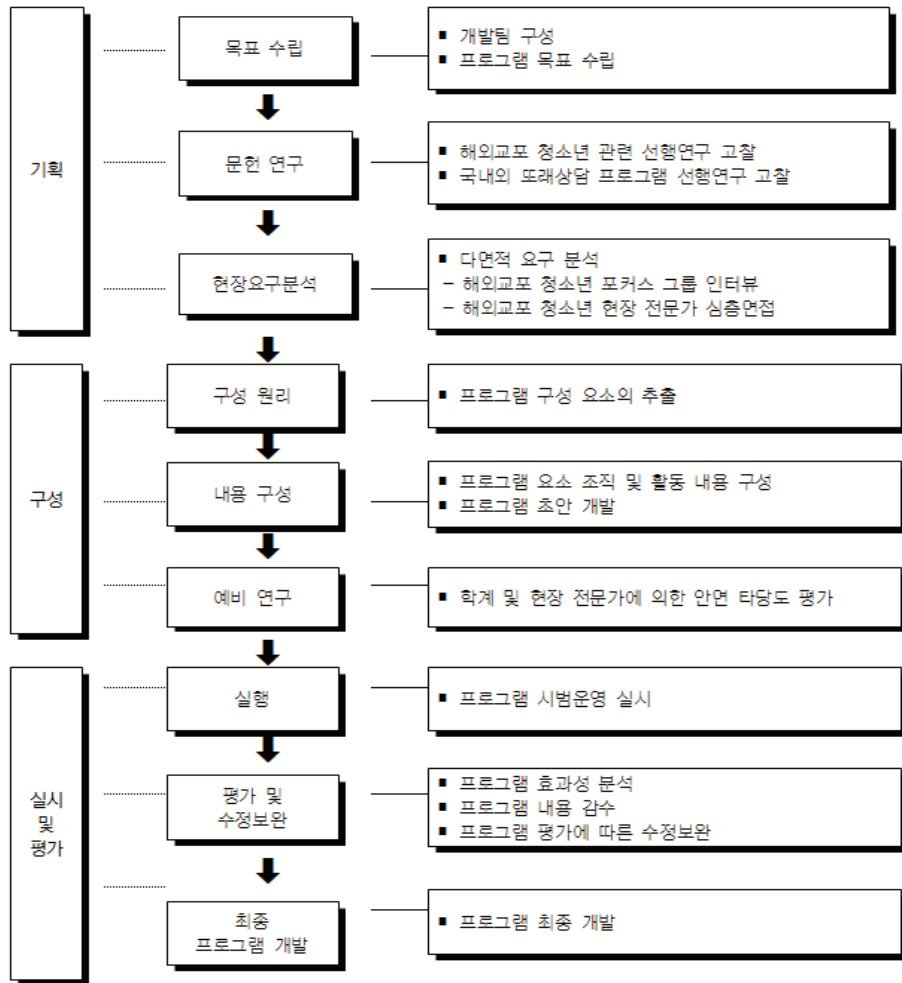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특성과 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문화부적응,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고찰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외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현황과 국내의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문헌연구 고찰 결과 먼저,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이들은 거주하는 국가문화와 부모국가의 문화 차이로 학업, 부모와의 관계 등 가정 내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소수민족 집단으로서 겪는 문화정체성, 소외감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심리지원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국내 또래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의 대인관계 기술과 교우관계를 향상시키고,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군대 등 비슷한 생활환경을 공유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집단에서 구성원의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상담의 효과성을 미루어보았을 때,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이들의 대인관계 기술 및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고 또래를 통하여 심리적 위안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유사한 정체성을 지닌 또래와의 교류를 가능케 하여 다문화 사회의 소수민족으로서도 정체성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현장요구분석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해외교포 청소년 현장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의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먼저, 해외교포 청소년 현장 전문가 심층인터뷰는 미국에 거주하며 교포 청소년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7명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6명은 5년 이상의 미국 거주 및 청소년 지도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1명은 미국 거주기간이 1.5년으로 교포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현지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하는지 등을 질문하고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과 보급 방법에 대해 탐색하였다. 또한,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인터뷰는 해외거주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대 17년인 16명의 청소년을 3집단으로 나누어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해결방법 및 또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해외교포 청소년들은 주로 학업-문화 적응-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부모와의 문화 차이 및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보다 심각한 것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고 심리적 지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는 또래들이 다른 친구의 고민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둘째, 인터뷰 결과 해외교포 청소년 또래상담자는 배려·경청의 태도가 필요함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기존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경청·공감기법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문화적 배경과 고민을 갖고 이를 잘 해결한 경험이 있는 자질이 필요함이 보고되었다. 셋째, 현장전문가들은 성공적으로 문화적응을 이루어 낸 멘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문화 역량을 함양하고, 미래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이 부각되었다. 넷째, 외국에서는 교통·학업 문제 등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모일 수 없는 환경이므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있어 SNS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포 사회 내 현장 전문가, 멘토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연합회를 통해 청소년의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지지체계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프로그램 구성 원리

문헌연구와 현장요구분석의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의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래상담자의 세 가지 역할인 ‘좋은 친구되기(Friendship)’, ‘대화하는 친구되기(Counselorship)’, ‘도움주는 친구되기(Leadership)’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즉, 적극적 경청, 어기역차(공감기법), 원무지계(문제해결전략), 공동체 조성활동 등 기존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대화하는 친구되기’의 사례 부분과 ‘도움주는 친구되기’의 세부 내용을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둘째,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주된 고민인 문화적응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 유능감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업, 부모와의 갈등, 문화적 정체성, 따돌림 문제 등 스트레스를 또래상담자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스트레스 관리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도움주는 친구되기 부분에는 해외교포 청소년 고유의 어려움을 공감해줄 수 있고, 관련 고민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선례가 있는 멘토를 활용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해외교포로서의 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섯째,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과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양미진 외(2013)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각각의 회기별로 또래상담자들이 교육을 받고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구성

앞선 프로그램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초안을 구성하였다. 첫째, 또래상담자는 어려움을 가진 친구를 상담하고 조력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다. 둘째, 또래상담자는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셋째, 또래상담자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문화적 유능감을 가진 청소년 지도자로 성장한다. 넷째, 또래상담자는 경청과 공감의 긍정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바탕으로 다음 표 1과 같이 프로그램 구성 모형과 내용을 마련하였다.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초안은 Friendship, Counselorship, Leadership의 총 3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단계별로 교육 120분, 활동(실습) 60분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Friendship 단계는 자신의 정체성과 친구관계를 탐색하고 친구에게 다가가는 방법과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Counselorship 단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 문화적 정체성, 부모와의 갈등, 따돌림 및 소외 등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주로 겪는 4가지 스트레스에 대해 모듈식으로 토론하고 친구의 고민을 경청하고 이를 공감하는 전략에 대해 습득하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Leadership 단계에서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리더로서 자신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청소년들과 유사한 고민을 해결하고 성공한 멘토의 사례를 배우고 다문화 사회 속에서 또래상담자 리더로서 지역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 습득하여 다문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표 1>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구성모형(초안)

단계	하위목표	구성요소	세부내용
Friendship (다가가는 친구되기)	-자신 타인에 대한 이해	-자신의 정체성 이해 -친구관계 탐색	-친구로서 자신의 역할 인식하기 -나의 친구관계를 다시 돌아보기 -친구와 가까워지는 방법 배우기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 인식하기
Counselorship (대화하는 친구되기)	-다양한 심리적 문제 이해 -대화 기술 습득	-친구 고민 이해하기 -경청 기술 습득	-해외교포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5가지 심리적 문제 이해하기 -적극적 경청, 공감기법 습득(어기역차 전략)
Leadership (도움주는 친구되기)	-다문화유능감(역량) 함양 -또래상담 기법 습득	-다문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 이해 -다문화 유능감 획득	-다문화 사회에서 성공한 멘토의 사례 배우기 -문제해결 및 상담기법 습득(원무지계 전략)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활동 배우기

연구절차 및 연구설계

해외교포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초안의 시범운영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거쳤다. 첫째, 시범운영 지도자 및 참가자 모집은 2014년 9월, 미국 4개 지역(북가주,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상담소와 한인대상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지도자는 미국에서 상담심리 대학원 졸업 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는 미국 내 거주 중인 교포 중고등학생을 모집하였다. 프로그램 참가 모집 홍보를 한 결과, 샌디에이고와 시애틀 지역에서 참가 의사를 밝혀 이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실험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시애틀 지역에서는 통제집단 모집이 용이하지 않아 샌디에이고 지역에서만 통제집단을 운영하였다.

둘째, 실험집단에 대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기 이전에 본 연구에 대한 샌디에이고 대학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았으며, 프로그램 지도자를 대상으로 화상회의와 상시 이메일을 통한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진행을 위한 웹교재와 지침서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본 연구진 중 1인이 직접 샌디에고 상담소를 방문하여 시범운영 과정을 지켜보았다. 아울러, 참가 의사를 밝힌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설명과 참여 동의를 받고 소정의 기념품과 봉사활동 인증서가 발급됨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셋째, 실험집단 구성원 선정은 무선(random)배정하였으며 실험집단에 대한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은 2014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1단계씩 진행하고, 이 기간 동안 통제집단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 시범운영 전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에 대해서는 참여자 관점 프로그램

평가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초안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참여자 관점 프로그램 평가지의 경우, 프로그램 목적, 내용, 방법, 자원, 교육훈련 환경, 훈련담당자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 주로 교육참가 당사자가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과정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이호준, 2006). 구체적인 사전검사, 프로그램진행, 사후검사 시기는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연구 설계

연구대상 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검사시기)	2014.11.~11.	2014.11.~	2014.~
실험집단	O ₁	X ₁	O ₂
통제집단	O ₃	-	O ₄

- O₁, O₃ : 사전검사(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유능감, 다문화 민족 정체성)
 O₂ : 사후검사(사전검사와 동일), 프로그램
 O₄ : 사후검사(사전검사와 동일)
 X₁ :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연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재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공고를 통해 모집된 참여 청소년은 샌디에이고 30명(통제집단 20명, 실험집단 10명), 시애틀 10명(실험집단)으로 총 40명이었고, 20명의 통제집단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14.8세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10학년(한국 학제 고1)에 재학 중인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3.7%, 7명). 참여자의 성별은 실험집단의 경우 남자 70%(14명), 여자 30%(6명)이었으며, 통제집단은 남녀 각각 8명(50%)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연구 참여 청소년의 50%(18명)은 미국에서 출생했으며, 나머지 50%(16명)은 한국에서 태어난 후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보다 자세한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실험집단(N=20)		통제집단(N=16)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지역	샌디에고	10	50.0	16	100.0
	시애틀	10	50.0	0	0.0
성별	남자	14	70.0	8	50.0
	여자	6	30.0	8	50.0
학년 (미국학제)	7학년	3	15.0	0	0.0
	8학년	2	10.0	0	0.0
	9학년	5	25.0	3	18.8
	10학년	8	40.0	7	44.0
	11학년	1	5.0	6	37.6
	12학년	1	5.0	0	0.0
나이	12	2	10.0	0	0.0
	13	4	20.0	0	0.0
	14	5	25.0	2	12.5
	15	5	25.0	8	50.0
	16	3	15.0	5	31.2
	17	1	5.0	1	6.3
출생지	미국	10	50.0	8	50.0
	그 외 지역	10	50.0	8	50.0

다문화 특성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들의 지각하고 있는 소속인종, 언어(한국어·영어)유창성 정도, 가정 내 사용 언어를 분석하여 다문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 중 58.3%가 스스로를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78%)에 비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98%)이 2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 중 50%(18명) 가정 내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며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문화 특성의 자세한 결과는 아래 표 4, 표 5,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4>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이 생각하는 소속인종 (N=36)

구분	한국인	한국계 미국인	미국인
빈도 (백분율)	11 (30.6)	21 (58.3)	4 (11.1)

<표 5>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의 언어 유창성 정도 (N=36)

언어	전혀 유창하지 않다	조금 유창하다	유창한 편이다	유창하다
한국어	1	7	13	15
빈도(백분율)	(2.8)	(19.4)	(36.1)	(41.7)
영어	0	1	5	29
빈도(백분율)	(0.0)	(2.8)	(16.7)	(80.5)

<표 6> 시범운영 참여 청소년의 가정 내 사용 언어 (N=36)

구분	한국어	한국어·영어(주로 한국어)	한국어·영어(1:1)	한국어·영어(주로 영어)	영어
빈도	5	18	8	3	2
(백분율)	(13.9)	(50.0)	(22.2)	(8.3)	(5.6)

측정 도구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타당성, 적절성, 운영과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자 관점 평가 도구와 사전-사후 평가를 위해 대인관계 능력, 자기효능감, 다문화 집단에서의 정체성 관련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장기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단기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인 또래상담자의 공감, 의사소통 기술 능력 향상을 알아보기 위해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RI)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다문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의 유능감 발달, 다문화 역량의 함양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문화 자기효능감 척도(BSES)와 다문화 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MEIM)를 사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합하였다.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3)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조망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는 능력(Fantasy), 자기중심적 공감(Personal Distress)의 4가지 하위요인이 7문항씩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조망수용능력과 공감적 관심 변인 질문만을 사용하였는데, 조망수용능력은 타인의 의도, 태도, 감정, 욕구를 추론하는 능력을 뜻하며, 공감적 관심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척도를 사용한 김환, 한수미(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0~.78사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2로 나타났다.

다문화 자기효능감 척도(Bicultural Self-efficacy Scale, BSES)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갖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David, Okazaki와 Saw(2009)가 개발한 다문화 자기효능감 척도(Bicultural Self-efficacy Scale, BSE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기반(Social Groundedness) 6문항,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Ability) 4문항, 긍정적 태도(Positive Attitudes) 4문항, 지식(Knowledge) 5문항, 행동 레퍼토리(Role Repertoire) 3문항, 이중문화적 신념(Bicultural Beliefs) 4문항으로 총 7개의 하위요인과 전체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하위요인에 대해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David 외(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3~.89 사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2 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MEIM)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다문화 집단 내에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Phinney와 Charvira(1992)가 개발한 다문화 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를(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MEIM)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민족 정체성에 대해 인지적으로 관여하는 것(ethnic identity search) 4문항과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것(affirmation, belonging, commitment) 8문항으로 총 2개의 하위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Phinney, Charvira(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Cronbach’s α) .91, 본 연구는 .83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솔리언뜨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어느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

전, 사후 검사 및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점수 차이가 실시한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순수한 효과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 20.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집단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한 검사인 대인관계반응성,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점수를 토대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모든 변인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사전검사 측정치	실험집단(N=20)		통제집단(N=16)		t
	M	SD	M	SD	
대인관계반응성	3.55	.42	3.40	.42	1.054
다문화 자기효능감	3.99	.61	3.51	.43	2.678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3.18	.42	3.10	.38	.526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효과 검증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량으로 하여 사후검사에 대한 집단 차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대인관계반응성,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의 참가자 관점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와 관련된 의견을 수합하였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대인관계반응성,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 효과성 확인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고,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사후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변량분석은 프로그램 처치효과 외에 개인차 변인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통제하고, 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후 수정된 평균과, 각 변인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를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 집단간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교정평균과 표준오차

측정치	집단	N	사전	사후	사후 수정된 평균
			M(SD)	M(SD)	M ^a (SE)
대인관계 반응성	실험집단	20	3.55(.42)	3.77(.39)	3.75(.08)
	통제집단	16	3.40(.42)	3.14(.26)	3.16(.09)
다문화 자기효능감	실험집단	20	3.99(.61)	4.13(.62)	4.10(.12)
	통제집단	16	3.51(.43)	3.08(.22)	3.13(.13)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실험집단	20	3.18(.42)	3.32(.46)	3.30(.08)
	통제집단	16	3.10(.38)	3.04(.32)	3.06(.09)

<표 9> 변인별 공변량 분석 결과

측정치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대인관계 반응성	공변인	.26	1	.263	2.29
	집단	3.03	1	3.04	26.39***
	오차	3.80	33	.12	
다문화 자기효능감	공변인	.28	1	.28	1.18
	집단	7.00	1	7.00	29.31***
	오차	7.88	33	.24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공변인	1.50	1	1.50	12.16
	집단	.52	1	.52	4.20*
	오차	4.06	33	.12	

* $p < .05$, *** $p < .001$

각 변인별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인관계 반응성[F(1,33)=26.39, $p < .001$], 다문화자기효능감[F(1,33)=29.31, $p < .001$],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F(1,33)=4.20, $p < .05$] 세 변인의 점수 변화 모두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한 20명의 실험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 관점 평가와 회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중 75%(15명)이상이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하였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의 80%(16명)이상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한 추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전체의 90%(18명)의 참가자가 다른 친구들에게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의 이해용이성은 참여자의 75%(15명)가 '쉬웠다'고 하였으며, 응답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프로그램의 유익성에 대해서도 80%(16명)의 참가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목적성에 대해서도 65%(13명)의 청소년이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졌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시범운영 참여청소년의 종합평가 결과 (단위 : 명)

질문	매우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수
1.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나요?	0 (0.0)	0 (0.0)	5 (25.0)	9 (45.0)	6 (30.0)	4.1	20
2.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0 (0.0)	0 (0.0)	5 (25.0)	9 (45.0)	6 (30.0)	4.1	20
3.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만족스러웠나요?	0 (0.0)	0 (0.0)	4 (20.0)	10 (50.0)	6 (30.0)	4.1	20
4.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졌나요?	1 (5.0)	0 (0.0)	3 (15.0)	13 (65.0)	3 (15.0)	4.1	20
5. 프로그램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나요?	0 (0.0)	0 (0.0)	8 (40.0)	8 (40.0)	4 (20.0)	3.8	20
6. 프로그램이 해외에 있는 다른 교포청소년들에게 활용되기를 원하나요?	0 (0.0)	0 (0.0)	3 (15.0)	10 (50.0)	7 (35.0)	4.2	20

<표 11> 프로그램 추천의향 평가 결과 (단위 : 명)

질문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응답수
1. 본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에게도 추천하고 싶나요?	2 (10.0)	18 (90.0)	1.1	20

<표 12>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객관식)

(단위 : 명)

단계별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평균	응답수
Friendship	교육	0 (0.0)	0 (0.0)	4 (20.0)	12 (60.0)	4 (20.0)	4.0	20
	활동	0 (0.0)	0 (0.0)	3 (15.0)	13 (65.0)	4 (20.0)	4.1	20
Counselorship	교육	0 (0.0)	0 (0.0)	5 (25.0)	9 (45.0)	6 (30.0)	4.1	20
	활동	0 (0.0)	0 (0.0)	4 (20.0)	12 (60.0)	4 (20.0)	4.0	20
Leadership	교육	0 (0.0)	0 (0.0)	4 (20.0)	10 (50.0)	6 (30.0)	4.1	20
	활동	0 (0.0)	0 (0.0)	6 (30.0)	9 (45.0)	5 (25.0)	4.0	20

<표 13>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주관식)

단계별 구분	응답 내용
Friendship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다. ·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유용했다. · 이해하는데 체계적이고 쉬웠다.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이 많아서 좋았고, 역할놀이, 게임 등이 좋았다. 즐거운 경험이었다. ·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 친구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Counselorship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친구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수 있었다.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상담기법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도 꽤 좋은 프로그램 인 것 같다. · 사례연구가 좋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돕는 방법을 배운 것이 좋았다.
Leadership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재미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 이해하기가 매우 쉬웠고, 도움이 되었다.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정말 되고 싶은 리더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 · 내가 교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위의 표 10, 표 11,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의 단계별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 1단계(Friendship)에 대해서는 80%(17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또래간의 활동, 역할놀이 등이 유용했으며,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2단계(Counselorship)에 대해 75%(15명) 이상의 참여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돕는 법에 대해 배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Leadership)에 대해 참여자의

80%(17명)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며, '매우 즐거웠고, 나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 프로그램에 대해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감수

프로그램 초안에 대해 샌디에이고 대학의 가족과 정신건강학과의 교수로서 소수민족 대상의 임상평가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가 1인과 시애틀 퍼시픽 대학 상담교육학과 교수로 학교상담 관련 전문가 1인에게 감수를 받았다.

감수결과 첫째, 본 프로그램의 영문명인 'Peer Helpers Program' 에서 'Helpers'라는 용어가 자칫 잘못하면 '도우미'와 같은 이미지로 비취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래상담'보다는 '또래멘토'나 '리더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보급에 더 용이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 수혜자의 범위, 나이, 모국어 등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명료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대상이 한국에서 온 이민자인지,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또래상담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의 내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위기상담의 경우 위험을 동반할 수 있기에 또래상담자의 활동 범위와 개입 범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넷째, 또래상담 윤리와 관련하여 또래상담자와 내담자 학생·부모에게 또래상담 훈련, 시간, 수퍼비전,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과 상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다섯째, 본 프로그램을 학교를 통해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는 소수민족 청소년을 목격하거나 만나기가 용이하며, 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한 예방 및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급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지침서에 또래상담의 특성, 효과성, 운영사례 등에 대한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프로그램 각 회기 별 감수로는 본 프로그램 1단계에서 다소 어려운 용어와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보다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질문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2단계의 파트 제목인 'Counselorship'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부모들이 '정신건강'에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기에 파트 제목을 부모들이 받아들이기 편안한 단어로 교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 회기 및 종합평가, 전문가 감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방향을 정하였다. 전반적인 평가 결과 프로그램의 초안이 프로그램 목표와 부합하며, 시범운영 참여자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진은 프로그램이 갖는 기본 구성요소를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초안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전문가 감수결과, 프로그램의 명칭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상담 또는 도움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한인 사회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Peer Helper Program’이라는 이름을 ‘Peer Mentor Program’으로 변경하고, 2단계의 ‘Counselorship’을 Fellowship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둘째, 전문가들은 또래상담자들이 다룰 수 있는 사례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비밀보장 등 윤리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례로, 자살과 같은 위기상황 발생 시 또래상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련 전문 기관, 전문가에게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Friendship의 교육 파트에서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 사례관리, 비밀유지 설명을 보완하였다. 먼저, 또래상담자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고, 전미또래상담전문가협회(NAPPP)의 윤리강령, 비밀유지 서약서, 또래내담자의 동의서를 받는 부분을 추가하였다. 또한 또래상담시 전문상담기관 의뢰하는 방법과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또래상담자의 상담 및 활동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지침서에 또래상담 사례지도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Leadership의 활동파트에서 또래상담자의 활동 계획을 세워보고 지도자와 함께 점검함으로써 또래상담 활동이 안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격려했다.

셋째, 프로그램 수혜자의 나이 및 모국어 등 대상 정보가 명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연구 주 대상이었던 영어가 편한 초등학교 때 이민을 오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1.5세 및 2세 재미교포 중 8학년(중 2)에서 11학년(고 2)으로 최종 정리하였다. 영어가 편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 청소년 웹교재나 워크북은 영어로 구성하고, 지도자 지침서는 영어 및 한국어 두 종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교포사회 내에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 프로그램의 지도자들이 직접 학교를 통해 보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 미국학교상담학회를 포함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인사회 내 보다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재외 한인동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지침서 및 워크시트의 형식이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지도자 지침서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 첫 문장은 2인칭을 고수하였고,

그 외의 구체적인 지침은 3인칭으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사항에 따라 최종 정리된 프로그램 내용은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4> 수정된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

단계	구분	시간(분)	목표	세부 내용
Friendship (다가가는 친구되기)	교육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목적과 활동 내용 소개 • 나와 닮은 사진 찾기를 통해 자신의 특성에 대해 생각 해 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누구일까?(Who am I?):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차이 탐색, 통합 방법에 대해 토의 • 나의 친구관계는?(My friendship): 친구관계 지도를 통해 집 단별 특징과 어떤 집단과 더 가까운지 등 고민 해 보는 시간 - 정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과 사례관리, 비밀유지 설명 : NAPPP(National Association Peer Program Professionals) 윤리강령과, 또래상담자가 할 수 있는 영역 과 아닌 부분 학습, 심각한 사례의 경우 또래상담 지도 자와 반드시 의논해야 함과, 전문상담기관 의뢰할 수 있음을 배움, 또래상담자로서 활동 동의서(및 부모동의 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사인, 또래상담 활동시 상대 방(및 부모동의서)에게 동의 받는 것의 중요성
	활동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이해 - 친구 사귀는 방법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타래 풀기(Unravel a tangle): 실타래 풀기 게임을 통 해 서로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 해 보게 함 -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란?(Definition of friend): 내가 생각하는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게 함 • 우정곡선 만들기(My friendship curve): 가장 친한 친구 를 떠올려보게 하여 사이가 좋았을 때, 좋지 않았을 때 에 따라 곡선을 그리고, 친구관계에서 걸림돌은 무엇이 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에 대해 생각 해 봄 • 장애물 극복하기(Resolving obstacles with friends): 친 구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경험, 더 친해지지 못해서 아 쉬웠던 경험 등을 생각하여 언제, 누구와, 어떤 생각이 나 느낌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 각하는지 떠올려보게 함 - 과제: 친해지고 싶은 친구를 선정하여 인터뷰 시도하기

단계	구분	시간(분)	목표	세부 내용
Fellowship (대화하는 친구되기)	교육	120	- 타인의 생각과 감정 이해 - 대인관계 기술 향상 - 스트레스 대처 전략 이해 - 경청 및 공감 기법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과제 점검 • 생각의 차이가 감정의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을 가르침 • 생각과 감정 구분하기: 어떤 생각으로 인해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 구분하고 나의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하게 함 -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문제 이해하기(Understanding psychological problems): 학업스트레스, 문화적 정체성, 부모와의 갈등, 따돌림 및 소외 4가지 스트레스에 대하여 모듈식으로 토론하고 이와 관련된 역할극을 실시 해 봄. 이를 통해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됨 • 스트레스 관리: 나의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해결방법이 적절한지 생각 해 보게 함
	활동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주기(Listening to friends in various ways): 무조건 안 들어주는 경험과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는 경험을 함으로써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함 -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팽이 게임(snail game): 2명씩 짝을 이루어, 한 명은 눈을 감고 한 명은 설명을 하며 달팽이 모양의 미로를 빠져나오게 함. 이를 통해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여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습득함 • 어기역차 전략 배우기: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을 이해해주고, 역지사지하여 공감 해주며, 차이를 인정하는 전략 습득 - 과제: 주변 친구, 가족 중 고민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기역차기법을 실습하고 기록하여 다음 시간에 가져 오도록 함
Leadership (도움주는 친구되기)	교육	120	- 다문화 유능감 향상 - 조력기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대통령(kid president) 영상 시청: 어리지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의 영상을 통해 리더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킴 -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로서의 자질(My qualities as a leader): 다양한 리더의 자질 중 자신이 갖고 있는, 갖고 싶은 자질을 생각해 보도록 함

단계	구분	시간(분)	목표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은?(Thinking about a leader from my place): 교포 청소년으로서 다문화 경험을 통해 습득된 감정과 역량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게 함 • 멘토 인터뷰(Mentor's Interview): 2명의 멘토 인터뷰를 시청하고, 멘토들이 갈등이 생긴 과정에서 어떤 강점을 개발시켰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느낌을 말하게 함
				<p>- 정리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주위 존경하는 인물을 정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고 인터뷰를 해 오도록 함
				<p>- 주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무지계 전략 이해하기: 도움주는 대화의 기본 전제에 대해 환기시킨 후, 원무지계 전략을 가르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실습함 • 공동체문화 조성 활동: 또래상담자로서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미래의 자신이 되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의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역할극을 해 봄 • 또래상담 활동 계획: 또래상담자로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계획해봄. 한국에서 진행되는 또래상담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지금 현재 자신은 어떻게 또래상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 계획을 세워봄.
				<p>- 정리 활동: 3주 동안의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소감을 나눈 후 마무리 함</p>
활동		60		

논 의

본 연구는 해외교포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문화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 및 해외교포 청소년 현장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원리 및 내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구성원리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기존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역할, 'Friendship(다가가는 친구 되기)', 'Counselorship(대화하는 친구되기)', 'Leadership(도움주는 친구되기)' 역할과 같이 규정하고, 이 역할에 초점

을 맞춘 세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Friendship 단계에서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 Counselorship 단계는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주로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의 이해 및 대화기술 습득, Leadership 단계는 다문화적 유능감을 함양 및 또래상담 기법 습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각 단계는 또래상담자의 역할 수행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회기와 실제 상담실습을 하는 활동회기로 구성하였다. 셋째, 교육회기는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주로 고민하는 심리적 문제(예: 학업, 부모와의 갈등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였다. 넷째, 활동회기는 기존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대화 기법(예: 어기역차, 원무지계 등)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이 같은 프로그램 구성원리 및 내용으로 구성된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본 연구는 미국소재 대학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미국의 시애틀과 샌디에고의 해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미국지역 상담소와 언론매체를 통해 모집된 7~12학년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전후에 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유능감, 다문화 민족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청소년 16명을 통제집단으로 상정하여 시범운영을 한 실험집단과 동일한 시기에 대인관계 반응성, 다문화 유능감, 다문화 민족 정체성 검사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시범운영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공변량분석을 활용하여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반응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는 능력이 배양되었으며,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역량이 길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신금란, 2013)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또래상담자의 기본 역량인 공감 및 대화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문화 자기효능감의 경우도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다문화 집단 내에서의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에 대해 갖는 유능감이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구성요인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집단으로 겪을 수 있는 정체성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fellowship), 다문화 사회 속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성공한 사례를 통해 공부하고, 향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내용을 포함시킨 점이 청소년의 다문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배우며 본 프로그램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자신이 다문화에 속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소속된 문화집단 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확고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다문화집단 민족 정체성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가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다문화집단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이해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 내용이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비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하고자 하는 동기가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더 소속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다문화 자기유능감 및 다문화 정체성의 향상되었다는 결과는, 다문화 사회 청소년들이 다문화 유능감을 통해 다문화 사회적응을 도울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강기정, 정은미, 정희정, 이송이, 2011; Patterson, 2007)에 근거하여, 해외교포 청소년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적인 역량을 가진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효과성 평가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현장적합성을 살펴보고자 참여자 관점의 평가를 별도 시행하였다.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 및 회기별 평가 결과, 75% 이상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의 90%가 본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프로그램의 목적성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80%의 청소년이 목적과 부합하게 만들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의 75%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이 이해하기에 쉬웠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활용성을 높이고자 또래상담 관련 미국 현지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아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고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지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요인 및 원리를 추출함으로써 해외교포 청소년에게 적합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해외교포 청소년의 문제 및 또래도움의 필요성, 기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고찰하였으며, 해외교포 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청소년 지도자 심층면접을 통해 해외또래상담 청소년의 고민 및 또래상담자 역할 및 프로그램 방향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구성요인 및 원리를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해외교포 청소년들로 하여금 또래상담자로 자질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발된 해외교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문화적응 등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나 상담지원서비스로부터 다소 소외된 해외교포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및 성장에 기여할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셋째, 현지 전문가인 외국학자들과의 연구협력 및 자문, 외국대학의 IRB 승인 등을 통해 해외교포사회를 포함한 해외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에 보급되는데 있어 실효성 및 현장적응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재미교포 가족상담학분야 학자의 공동연구, 다문화 가족상담학 분야

외국학자의 연구과정에 대한 자문 및 교육내용에 대한 자문, 학교상담분야 외국학자의 학교 상담적용에 대한 자문, 외국대학 IRB승인을 통한 시범운영 등을 거침으로써 해외 보급에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주요 수혜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해외교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이 주로 보급될 해외교포 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해외교포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교포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해외교포 중 재미교포 청소년에게 초점을 두었기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심층연구, 시범운영의 대상이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청소년이며, 대부분이 교포인구가 밀집해있는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1.5세나 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외에 다른 해외나 교포인구가 적은 지역의 청소년 대상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 동부를 포함한 해외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1.5세나 2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문화적응의 문제를 더 크게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실험설계에 있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대해 아무런 처치를 취하지 않음에 한계가 있다.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나게 함에 있어서 통제집단 외에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을 추가,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요소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미국 샌디에이고와 시애틀에 거주하는 해외교포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해외교포 대상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갖는 효과성을 다른 해외교포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고유의 효과 외에 제3변인에 의한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외교포 청소년 대상의 효과성 검증 연구가 실시 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강기정, 정은미, 정희정, 이송이 (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1), 5-22.

- 강주영, 임성택 (2010).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상담평가연구, 3(1), 1-14.
- 구본용, 구혜영, 이명우 (1994).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환, 한수미(2015). 어릴 적 외상 경험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251-274.
- 노성덕, 김계현 (2004). 국내 또래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2(2), 3-10.
- 류부열 (2007). 또래상담자 훈련이 고등학생의 공감능력, 친사회적 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성준 (2008). 미디어 효과와 문화변용: 시카고 한인타운에서의 미디어 효과와 문화가치. 방송연구, 여름호, 161-185.
- 미주 YMCA (2004). 전화상담자료집. <http://www.ymca.net/>에서 검색.
- 박보라 (2008). 또래상담자 훈련이 또래상담자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 (2007). 또래상담자훈련 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형원 (2010). 해외이주 한인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재영 한인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8), 208-316.
- 변상해, 김세봉, (2011).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기술과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 11(2), 466-476.
- 신을진, 김창대, 김형수, 이상희, 최한나 (2011).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 신금란 (2013). 국내 또래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가영 (2008). 또래상담훈련프로그램 경험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미진, 김은영, 이상희 (2008).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려증진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양미진, 서미, 주지선, 김혜영, 전환희, 성벼리 (201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심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오유하 (2009). 또래상담자 유형에 따라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의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외교부 (2013). 재외동포 현황. <http://www.mofa.go.kr>에서 검색.

- 원영희 (2005). 재미교포 노인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일립논총*, 11, 151-178.
- 유채영, 이주경 (2012). 문화적응이 재미교포 청소년의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3(3), 159-253.
- 이남희 (2005). 또래상담자 활동이 교우관계 및 학급분위기에 미치는 효과.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테지레 친 (2011). 재미 한인청소년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32(6), 33-48.
- 이호준 (2006).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재외동포재단 (2010). 연도별 재외동포 현황. <http://www.korean.net>에서 검색.
- 정정임, 주은선 (2006). 또래상담 활동이 따돌림 경험 학생들의 심리적인 변화에 주는 영향: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22, 1-16.
- 최혜숙 (2006).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숙, 이현림 (2005).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 및 소속 학급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6(2), 415-433.
- Bernstein, K. S., Park, S. Y., Shin, J., & Park, Y. (2009). Acculturation,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New York Cit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7(1), 24-34.
- Choi, G. (1997).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Kore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 81-97.
- David, E. J. R., Okazaki, S., & Saw, A. (2009). Bicultural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Initial Scale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2), 211-226.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of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Company.
- Fong, R. (2004).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with immigrant and refugee children and familie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urh, W. M., & Kim, K. C. (1990). Correlates of Korean immigrants mental health.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8, 703-711.

- Jang, Y., Chiriboga, D. A., & Okazaki, S. (2009).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services: Age-group differences in Korean American adults. *Aging & Mental Health, 13*(1), 127-134.
- Kim, S. R. (1994). *Ethnic Identity, Attribute Factors, and Selfesteem Among Korean American College and High School Students*. Ph.D. dissertation, Emory University.
- Lee, H., Moon, A., & Knight, B. G. (2004). Depression among elderly Korean immigrants: Exploring socio-cultural factors. *Journal of Ethnic &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13*(4), 1-26.
- Miller, A. M., & Chandler, P. J. (2002). Acculturation, resilience, and depression in midlife women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Nursing Research, 51*, 26-32.
- Noh, S., & Avison, W. R. (1996). Asian immigrants and the stress process: A study of Koreans in Canad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37*(2), 192-207.
- Park, H. S., & Rubin, A. (2012). The mediating role of acculturative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level and depression among Korea immigrants in the U. 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36*, 611-623.
- Park, S. Y., & Bernstein, K. S. (2008). Expression and Korean American immigra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2*(1), 12-19.
- Patterson, K. (2007). The new face of leadership: A global emergence in the marketplace. *숙명 리더십 연구, 5*(1), 918-927.
- Phinney, J. S., & Charvira, V. (1992).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An exploratory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15*, 271-281.
- Portes, A., & Rumbaut, R. G. (1996). *Immigrant Amreica: A Potrai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hea, M., & Yeh, C. (2008). Asian American students' cultural values, stigma, and relational self-construal: Correlates of attitudes toward professional help seek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0*(2), 157-172.
- Sue, S., Cheng, J., Saad, C. S., & Chu. J. P. (2012). Asian American mental health: A call to action. *American Psychologists, 67*(7), 532-544.
- Sue, D. W., & Sue, D. (2008).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5th

-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U. S. Census Bureau. (2010). Overview of race and Hispanic origin; 2010. Retrieved from <http://www.census.gov/prod/cen2010/briefs/c2010br-02.pdf>.

The Development of the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for Korean Youth Living Abroad

Seo, Mi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Cheon, Hee Sun

Seattle Pacific University

Yoon, Min Jee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Lee, Hye Min

Daejeon Metropolitan City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for Korean youth living abroad' based on the model of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for Korean students' to reduce cultural stresses of Korean youth living abroad, and increase their multi-cultural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skills. Precedent studies performed in and outside Korea on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issues of Korean youth living abroad, and other peer counseling programs were examined. In addition, focus-group interviews and 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rofessionals who have experiences of working with Korean youth living abroad.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precedent researches and interview analyses, the program has divided into three parts which include the three roles of peer counselors - Friendship, Counselorship, and Leadership.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t was implemented to 20 adolescents, and the assessment tool was given to the participant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o measure interpersonal skills, bi-cultural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ability. After its test operation, participant evaluation was also conducte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Independent-Samples t-test and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and it was reported that scores for all three areas - interpersonal skills,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identity - have increased. For program evaluation, 75% of participants showed general satisfaction and more than 90% answered that they would recommend the program to others. At last,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program, and propose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Korean-Americans, Korean Youth Living Abroad,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Development

